

가족·동료 하나된 봄비 레이스... 남도에 흠뻑 젖다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풀코스 참가자들이 단비를 맞으며 호남의 젖줄 영산강변을 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흥국씨 첫 출전 풀코스 우승...여자부 이정숙씨 4연패 기염

각 부문별 입상자			
순위	이름	기록 (시·분·초)	
풀	남자	1위 이흥국	2 : 36 : 27
		2위 김수용	2 : 37 : 15
		3위 최진수	2 : 38 : 11
	여자	1위 이정숙	3 : 03 : 04
		2위 김정숙	3 : 06 : 14
		3위 박천순	3 : 16 : 55
하프	남자	1위 김승환	1 : 15 : 55
		2위 배정선	1 : 17 : 30
		3위 박승근	1 : 17 : 45
	여자	1위 류승화	1 : 24 : 50
		2위 송미숙	1 : 28 : 30
		3위 매건 퍼	1 : 32 : 59
10km	남자	1위 이재식	35 : 04
		2위 김선호	35 : 43
		3위 안계원	36 : 32
	여자	1위 전정숙	41 : 48
		2위 최정희	43 : 39
		3위 김유순	44 : 00

새 봄을 여는 희망 질주,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지난 1일 펼쳐졌다. 4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챔피언들의 질주가 돋보였다. 대회는 이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광장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마라톤 동호인을 비롯해 직장인·가족 등 전국에서 50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도심을 달리며 화합과 희망의 레이스를 펼쳤다. 김여승 광주일보 사장은 대회사에서 "3·1절 마라톤은 3월1일에 민주주의의 본산인 옛 전남도청에서 펼쳐지는 호남인의 마라톤 순례"라며 "3·1 독립정신과 5·18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질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명의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다. 풀코스 남자부 이흥국(43·수원사람 마라톤클럽), 하프 남녀 김승환·류승화, 10km 여자부 전정숙씨가 주인공이다. 2시36분27초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흥국 씨는 3·1절 마라톤에 첫 출전해 우승패를 거머쥐었다. 확장시절 중장거리 선

수로 활약한 이 씨는 아마추어 마라톤계에서는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여자부에서는 이정숙(49·천안마라톤클럽) 씨의 우승 질주가 계속됐다. 전국가대표 마라토너인 이씨는 3시간3분4초에 42.195km를 완주하며 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하프코스 정상은 남녀 모두 새얼굴이 차지했다. 두차례 풀코스에 도전했던 김승환(43·서울 에이스클럽) 씨는 이번에는 하프프로 전환해 1시간15분55초로 우승패를 안았다. 여자부 우승은 3·1절 마라톤대회에 처녀 출전한 류승화(36·충남 천안) 씨에게 돌아갔다. 류씨는 1시24분50초에 주파하며 지난해 우승자인 송미숙씨를 밀어냈다. 남자 10km에서는 5km 우승 경험이 있는 이재식(33·전북 전주) 씨가 35분4초로 골인, 1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대회에 첫 출전한 '늦깎이 마라토너' 전정숙(44·경남 통영) 씨가 41분48초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처음 출전한 이흥국 씨가 42.195km를 2시36분27초에 질주,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심재용 총괄심판이 바라 본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김재룡 뛰었던 금남로 최고 명품 코스”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호남의 마라톤의 지력을 알린 대회였습니다.” 심재용(광주시청 육상감독) 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 제49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심판 총괄을 맡아 마라톤 대추제에 함께 했다. 심 전무는 “비가 조금 내렸지만 기온이 쌀쌀하지 않아서 뛰기에 괜찮은 조건이었다. 특별한 사고나 부상자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가 끝났다”며 “새봄의 질주를 위해 광주를 찾은 이들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협조해준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3·1 마라톤대회는 호남 마라톤은 물론 한국 마라톤의 역사라는 것이 심 전무의 얘기. 도심을 달리는 코스는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평가다. 심 전무는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룡, LA 김원식 등이 모두 광일마라톤 출신이다. 옛 전남 도청에서 출발하는 풀코스는 육상 대선배들이 달렸던 길이 다. 도심을 달리는 코스는 어느 대회 코스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코스도 뛰어나지만 전국의 실력 있는 마라토너들이 많이 찾으면서 대회의 품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많은 이들이 명품 코스를 달리며 실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마라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승기자 wool@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험기

www.kjhr.com

디지털 보험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 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 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시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필요한가요?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VIP 연회권 신설!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 · 헬스이용권 (개인가족겸용)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페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웰빙 샐러드 뷔페(10층스카이뷰)

부담없는가격 · 풍부한 샐러드 바
웰빙의 야채와 최고기 샐러드

주중 12,000원 / 주말 15,000원 / 어린이 7,000원(부가세포함)

호텔무등파크 문 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